

축사 건축물  
디자인 가이드라인

강진균  
(디자인팀)

# 1 개요

---

## 1.1 목표

- 자연과 조화로운 경관을 창출하기 위한 축사 건축물의 색채 디자인의 질을 향상시킨다.
- 축사 건축물의 벽체와 지붕 재료의 색채 디자인 전반에 걸쳐 유의해야 할 근본 원칙과 기준, 세부적 고려사항을 제시한다.

## 1.2 적용 대상

본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은 축사와 부속건축물인 퇴비사, 창고 등이다.

# 2 기본 방향

---

## 2.1 현황 및 문제점

- 파랑색 등의 화려한 원색의 판넬로 건축된 축사, 창고 등이 산재되어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해친다.

## 2.2 개선 방향

- 원색류의 고채도의 색채를 지양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흰색, 회색 계통을 중심으로 하는 저채도 색채이미지를 추구한다.
- 벽체나 지붕 등의 색채를 같은 색상으로 하여 주위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다.

## 3 일반 가이드라인

### 3.1 디자인 가이드라인

#### 3.1.1 건물 입면 재질과 색채

- 좋은 디자인으로 가려면, 무엇보다 ‘유혹의 억제’가 중요하다. 자기 식대로 하고 싶은 충동을 자제하는 일이 필요하다.
- 색깔을 최소화해야 한다. 색깔은 거의 무조건 한 두 가지로 끝내야 한다. 특히 녹색, 붉은색, 짙은 하늘색만은 삼가야 한다.
-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재료와 색채를 사용하되, 재료 자체의 색을 왜곡하거나 변형하는 색채 계획은 지양한다.
- 주변 자연환경에 조화로운 색채로는 벽체 및 지붕 모두 흰색, 은회색 계열을 권장한다.
- 내구성 있고 관리, 보수, 교체가 용이한 재료를 사용한다.

#### 3.1.2 응벽 등 제한

- 응벽 발생을 최소화하고 입면 녹화나 자연석 사용을 권장한다.
- 울타리를 설치할 경우에는 녹색을 지양하고, 흰색 또는 회색의 울타리 사용을 권장한다.

### 3.2 가축사육(축사 허가) 제한 지역

#### 3.2.1 절대제한지역
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중 주거 지역, 상업지역, 자연환경보전지역(수산자원보호구역은 제외) 및 동법 제37조에 의하여 지정된 취약지구

- 주거밀집지역의 최근접 인가로부터 직선거리로 닭, 오리, 개, 돼지는 500m이내, 기타 그 이외의 가축은 100m 이내 지역. 다만,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신고대상 규모 이상 가축사육시설의 관리사는 인가에서 제외
- ※ “주거밀집지역”이란 가축사육시설(예정 포함)로부터 최단으로 이격된 인가를 기점으로 축사 방향을 제외한 나머지 방향으로 직선거리 400m 이내에 10호 이상 인가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.
-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직선거리 200m이내 지역

### 3.2.2 상대제한지역

- 상대제한지역은 주거밀집지역 외 지역 중 다음 각호의 지역으로 한다. 이 경우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신고대상 규모 이상 가축사육시설의 관리사를 제외한 최근접 인가로부터 직선거리로 한다.
  1. 닭, 오리, 개, 돼지 : 200m 이내
  2. 소, 젖소, 말, 사슴, 양 : 100m 이내
- ※ 최근접 인가로부터 축사 방향을 제외한 나머지 방향으로 직선거리 닭, 오리, 개, 돼지 200m 이내, 기타 그 외의 가축은 100m 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각 세대주의 동의를 구한 경우는 제외한다.

### 3.2.3 주변환경 영향검토 대상 지역

- 관광지, 공원, 유원지와와의 근접거리 300m이내
- 고속도로, 국도로부터의 근접거리 4차선 300m, 2차선 200m 이내
-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으로부터의 근접거리 300m이내
- 문화재(전통사찰 포함)로부터 근접거리 500m이내

## 3.3 가축사육자의 의무

-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주위환경과 주민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1. 가축 배설물의 제거 및 공공수역 등에 무단방류 금지
  2. 가축분뇨의 악취 및 기생충과 전염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축사 내의 청결유지

## 3.4 디자인 사례

### 3.4.1 피해야 할 사례



- 벽체와 지붕 모두 파랑색과 녹색의 고채도 색채를 사용하여 주변 자연 경관을 해치고 있음.  
→ 튀지 않고 자연속에 녹아들 수 있는 흰색 또는 은회색을 사용해야 함.
- 벽체 중간에 고채도 색채의 띠를 넣어 시각적 혼란을 주고 있음.  
→ 치기적 기교를 삼가야 한다. 겉멋 부리면, 버린다.

### 3.4.2 좋은 사례



- 벽체와 지붕 모두 흰색 또는 은회색 강판을 사용하여 깨끗한 이미지를 줌.
- 흰색과 은회색은 개별로 튀지 않아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게 하는 좋은 색채임.